

종합뉴스

현장

문화·정보

넷포터

네트워크

주니어발언대 | 추천하고픈 책 | 강원도내청사 | 만평

* 홈 / 전체기사

'제3회 강원문화유산의 날'

미천골자연휴양림 정려대상, 종교·문화계 300여명 참석 '성황'

2010-04-05 20:10:18

기사둘러보기 · 인쇄하기



◀ '제3회 강원문화유산의 날' 행사가 5일 양양군 낙산사 원통보전 앞에서 김진선 도지사, 최재규 도의회의장, 이진호 양양군수, 정념 스님, 무문 낙산사주지스님, 신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데일리안 강원

'제3회 강원문화유산의 날' 행사가 5일 양양군 낙산사 경내에서 열렸다.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강원도와 KBS춘천방송총국이 공동 주최로 연 이날 행사는 김진선 도지사, 최재규 도의회의장, 이진호 양양군수, 정념 스님, 무문 낙산사주지스님, 신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성황을 이뤘다.

대	담당	지사장	결
신도원	한영웅	무문	일
			일
			제



▲ '제3회 강원문화유산의 날' 행사가 5일 양양군 낙산사 원통보전 앞에서 김진선 도지사, 최재규 도의회위원장, 이진호 양양군수, 정념 스님, 무문 낙산사주지스님, 신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내빈들과 수상자와의 기념촬영. (데일리안 강원)

도문화재위원회 제1분과 원영환 위원장의 '강원 문화유산의 날 선언문' 낭독으로 행사가 시작돼 문화유산 보존관리 공헌자에 대한 강원도지사의 감사패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진선 지사는 문화재지킴이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에서 영예의 대상에 미천골 자연휴양림, 최우수상에는 쌍용양회공업(주)·(주)영월드, 우수상에는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점·SK에너지·(주)동해물류센터·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게 각각 수상하고 격려했다.

정려 대상을 수상한 미천골자연휴양림은 지난 2008년 7월 '보물 제444호 선림원지 삼층석탑' 외 4점과 '1사1문화재지킴이 운동'의 협약을 체결하고, 전직원이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주변 정화활동과 문화재에 대한 소개 및 교육활동 전개 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번 정려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문화재 애호운동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할 계획이며, 강원 문화유산의 날을 기념되는 행사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안 강원=고석동 기자]

[고석동 기자]

☞ 고석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주)이비뉴스에 있으며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